

서울 프레스센터서 5·18 학술심포지엄

# “5·18정신, 시대 흐름 담아야”

## “광주 탈지역화 통해 5·18운동 부활시켜야”

희생자 보상이나 진상규명과 같은 전통적인 논의의 틀에서 벗어나 5·18 민주화운동을 여성주의, 탈민족주의 등 다양한 시각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학술심포지엄이 열려 주목을 끌었다.

그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인 틀에 갇혀있거나 행사위주로 진행돼 변화하는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성공회대 민주주의와사회운동연구소와 전남대 5·18연구소가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5·18 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새로운 성찰적 시각에서’를 주제로 연 학술심포지엄은 이런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금까지의 5·18 논의에

서 담아내지 못한 다양한 관점과 주장들이 쏟아졌다.

발제에 나선 경북대 사회학과 노진철 교수는 “광주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있는 기억의 장소로서 강조될수록, 호남 밖의 다른 지역 사람들이나 보수 세력이 5·18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점점 더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영수 진보평론 편집위원도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광주는 제도화의 뒷에 갇혔고, 민주주의 이름으로 혁명광주는 거세되었다”면서 “광주의 탈지역화를 통해 5·18 운동을 부활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의 5·18 무관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보현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

구교수는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학생들조차 5·18을 과거의 희미한 기억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188명의 학생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의 중·고등학생들은 교과과정을 통해 5·18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이해도는 매우 피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5·18이 시험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면서 이는 학벌주의의 반면, 사회에 뿌리박은 경쟁적 자본주의의 영향이 크다고 해석했다.

그는 젊은 세대에게 5·18의 광주는 이미 희미하고 무덤덤한 과거사에 불과하다면서 일상 속에서 5·18

정신을 구현해 나가야 5.18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은 5·18 당시 대학생이나 시민계층이 아니라 노동자, 빈민, 무직자, 고등학생 등이 사건의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그동안 제대로 대변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지금이라도 이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 강내희 중앙대 교수, 최정기 전남대 교수, 안진 전남대 교수, 정호기 성공회대 교수, 박명림 연세대 교수, 김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신종화 전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美탐사 로봇 화성 북극 안착

## NASA 작년 8월 발사...3개월간 임무 수행



미국 화성탐사로봇 피닉스가 화성 북극 근처 표면에 무사 착륙한 뒤 처음으로 지구로 전송해온 화성 표면 사진. /연합뉴스

미항공우주국(NASA)의 화성 탐사 로봇 피닉스가 26일 오전 8시53분(한국시간·미국 동부시각 25일 오후 7시53분) 화성 북극권의 얼음 사막에 무사히 착륙, 물의 흔적을 찾는 90일간의 임무에 착수했다.

지난 해 8월 발사된 피닉스호는 시속 1만9천200km 이상의 속도로 약 7억km를 날아간 끝에 화성 대기권에 진입했으며 나하산과 역추진 로켓을 이용해 속도를 시속 8km로 줄여 연착륙에 성공했다.

‘공포의 7분’으로 불리는 착륙 과정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던 NASA 관계자들은 피닉스가 보내온 착륙 신호를 포착하자 환성을 지르며 기쁨에 휩싸였다.

피닉스 프로젝트 책임자 배리 골드스틴은 “꿈에서라도 이처럼 완벽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피닉스는 목표지점 한복판에 정확하게 내려 앉았다”고 말했다. 1976년 쌍둥이 탐사선 바이킹 이래 화성 표면 탐사선이 동력을 이용한 연착륙에 성공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04년 착륙한 쌍둥이 탐사로봇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는 나하산과 에어쿠션을 이용해 몇 차례 반동 끝에 착륙했다.

무게 347kg의 세 발 로봇 피닉스는 외계 생명체를 포착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은 없지만 과거에 얼음이 녹았던 흔적이나 유기물 흔적이 있는 지를 분석해 생명체가 살았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피닉스는 잇단 우주선 부품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다. /연합뉴스

# 자녀 학교에도 나랏돈 지원

## 교과부 간부들 ‘모교 지원’외 추가 특별교부금 드러나

### “해당 실국장 문책 인사”

교육과학기술부 간부진이 스승의 날을 기념해 모교를 방문한 뒤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간부들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방문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를 교과부 간부가 방문해 ‘나랏돈’을 지원한 행위는 ‘도덕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더구나 교과부는 매년 직원들에게 학교현장 방문을 독려하면서 방문 학교에 모교, 자녀 학교를 포함시켰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도연 교과부 장관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진상 파악을 해본 결과 학교 방문을 한 실국장은 모두 7명이며 이중 2명은 모교가 아닌 자녀 학교를 방문한 후 특별교부금 지원 약속을 하고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

다. 자녀 학교를 방문한 간부진 중에는 장관 비서실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모교를 방문하는 것만 해도 큰 물의를 빚을 일인데 자녀 학교를 방문했다는 것은 더욱 문제”라며 “이들이 스스로 인사조치를 받았다고 요청해 와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일부 간부들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학교 방문 행사는 장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에서 장관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일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과부가 전 직원들 대상으로 지난달 말 내려보낸 ‘학교 현장 방문 독려’ 공문에는 방문 학교 대상에 명백히 ‘모교 또는 자녀 학교’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즉 교과부 간부가 모교나 자녀학교를 방문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

적은 차지하고서라도 이번 현장 방문은 결국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는 얘기다.

우형식 제1차관은 “이 공문은 한참 전 전 직원에게 내려보낸 것이고 이번 문제가 된 실국장들의 학교방문은 이후에 장관이 추가로 재차 현장방문을 독려했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라며 “그 때문에 일부 간부들이 공문 내용과 장관 지시를 혼동해 자녀학교 방문에 나섰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승의 날 기념 직원들의 학교현장 방문은 스승 존중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27년 간 해오던 것이며 예산지원과는 관계가 없다. 예산지원을 약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문책 인사를 검토하면서 자녀 학교를 찾아가 실국장에 대해서만 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행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 美대선 본선 경쟁력

#### 힐러리, 오바마에 앞서

미국 민주당이 3개 지역 프라이머리(예비선거)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본선 경쟁력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에 뒤진다는 조사결과가 25일 나왔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이 지난 20~24일까지 미 전역의 투표등록유권자 4천423명을 대상으로 11월 본선 가상대결을 벌인 결과 공화당 후보로 결정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오바마에게는 이기지만 힐러리에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에 따르면 매케인과 오바마 가상대결에선 47% 대 45%로 매케인이 2% 포인트 높은 반면에 매케인과 힐러리 대결에선 힐러리가 49%를 얻어 44% 지지에 그친 매케인을 5%포인트 앞섰다. /연합뉴스

# 여진·물난리...중지진 피해 확산

## 연색호 붕괴 임박, 규모 6.4 강진 또 발생

중국 쓰촨성 대지진이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호수와 댐 붕괴 위험이 높아지고 여진이 끊이지 않으면서 피해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만들어진 자연 호수인 연색호의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서 붕괴 위험이 커지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1천 800여명은 26일 베이촨현 부근 탐사선에 생긴 연색호에 각자 10kg씩의 다이내마이트를 소지한 채 집결, 이 호수를 폭파시킬 준비를 끝냈다고 관

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수량이 1억m³ 이상에 달한 이 호수는 연색호 34개 중 최대규모로, 수위가 723m로 급속히 높아져 29m만 더 높아질 경우 붕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당국은 또 지진 피해지역에 생긴 34개의 연색호 주변 위험 지역 주민들을 긴급대피시키고 24시간 수위 감시체제에 들어가는 등 홍수 방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 수리부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69개의 댐이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다른 310개 댐 역시 매

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 홍수 발생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쓰촨성 청천현에서는 25일 오후 4시21분(현지시간) 규모 6.4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천 여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여진은 간수성에서 1명이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어서 7만1천300여명의 가족을 무너뜨리고 20만체가 무너질 위험에 처했다.

이날 여진은 수 만명의 인명을 앗아간 지진 참사의 악몽이 채 잊혀지지 전에 일어나 중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칭천에서 250km 남서쪽에 떨어진 청두에서도 여진이 20초간 계속됐다. /연합뉴스

**호남최대!! OPEN**

**인마의자·홈사우나 전문매장**

● 백만원대 안마의자  
- 신기술 7종 수중욕 수증기 욕조, 욕조, 욕조, 욕조  
- 시아 고급 욕조

● 평방 100만원대의 홈 사우나  
- 욕조, 욕조, 욕조, 욕조, 욕조, 욕조, 욕조, 욕조

● 비싼대 살라 보습

인마의자/홈사우나 체험실 모집중

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복지용구 판매실 창업상담문의

황남역출구 광주시 남구 백운동 652-59 (031-026-2538) (021094-0122) 011-601-2637

www.youngbo.com

새로운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적당 40명)**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취득 교육생 모집 (적당 40명)”

교육과정	차적증 1반 (간호사, 조부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차적증 2반 (사회복지사, 신규차량 / 승객지반)		
신규 모집반	09:00~18:00(월~금)	신규 모집반	18:30~22:30(월~금)	
신규 모집반	09:00~13:00(월~금)	차적증 1반	평일	18:30~22:30
신규 모집반	14:00~18:00(월~금)	차적증 2반	주말(토,일)	14:00~18:00
신규 모집반	18:30~22:30(월~금)	차적증 1반	주말(토,일)	14:00~18:00

※교육 이수 후 시험일이 1급 국가자격증 교육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국비 지원 혜택 (80%~100% 환급)  
근로자 능력개발 제도 소지자 혜택 (사용한도내 100%)

가족사랑 요양보호사교육원

상담 전화 062)364-1152-3 062)368-2070